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1호[2009. 6] : 133~167

표준 스페인어에 대한 편견 혹은 무관심: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한 고찰

조 혜 진*
(Cho, Hye-Jin)

<Abstract>

Algunas Consideraciones Sobre el Español de América

Con este trabajo pretendemos llamar la atención sobre la necesidad e interés de introducir el español que se habla en América en la enseñanza de E/LE, ya que en los materiales de E/LE y en el aula suelen incidir específicamente en el tratamiento del español peninsular. Aparte de ser mayoritario en cuanto a número de hablantes, ya no cabe duda de que el español americano tiene la misma autoridad y prestigio que el de España.

Sin embargo, la presentación del español de América en el aula nos plantea algunos obstáculos a la hora de llevarla a cabo. Por ello, consideramos que para hacer referencia al español americano deberá hacerse por lo menos dentro de tres contextos, el histórico, el geográfico y el sociocultural. Desde nuestro punto de vista, además del conocimiento lingüístico que diferencia el español de América del peninsular, estos contextos permitirán un acercamiento objetivo al problema conceptual y pedagógico que nos concierne. Y así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hjflex@hanmail.net

esperamos que los alumnos, futuros hablantes de español, tengan la máxima información para poder comportarse adecuadamente en cualquier parte del mundo hispánico.

[Key Words: Español/ Variantes de Español/ Enseñanza de E/ LE]
[주제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변이형/ 스페인어 교육]

Ⅰ. 서론

소위 중남미 스페인어, 즉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어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최소한 국가의 수만큼은 다양하고 상이한 언어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역사적인 특징과 같은 비언어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도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언급하는 '중남미 스페인어'란 과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스페인어를 가리키는가.

본 연구에서 선택한 명칭인 '중남미 스페인어'는 지역적diatópico, 계급적diastrático, 개인적diafásico 차이에 따른 상이한 언어상황을 광범위하게 통합한 중성적인 명칭이다. 갈리시아에서 카나리아스 제도에 이르는 스페인 내부에도 다양한 변이형variante들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아메리카 양 대륙에 걸쳐 널리 쓰이는 스페인어에 수많은 변이형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대서양을 가운데 둔 약 4억의 인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어가 단일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사실인 나머지 쉽게 간과되어지고, 특히 스페인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문제는 의사소통능력 배양이라는

당면목표에 밀려 숙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말이다.[1)]

사실, 아르헨티나 한 나라만 살펴보더라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뚜꾸만 Tucumán의 말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스페인어 변이형에 관련된 문제는 '유럽 스페인어 vs. 중남미 스페인어'의 매우 단순화된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모델 선택에 있어 큰 문제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Vos의 사용이 올바른가, linda를 bonita 대신 써도 무방한가[2)], z를 [θ]로 발음해야만 하는가, 왜 A 교수님과 B 교수님은 발음이 다른가, s의 발음을 생략해도 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학생들이 빈번히 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더욱이 중남미 스페인어가 발음이나 어휘, 문법

1) 이와 관련하여 김우성(2000, 2001)의 선행연구를 참고할 것.

2) 이와 관련하여, Morala Rodríguez, J. R.(2003, 17)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인터넷상의 언어모델과 언어사용태도에 대해 연구한 Morala Rodríguez는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2인칭 단·복수 동사의 시제와 fontanero/ plomero, bonito/ lindo 등의 사용빈도 비교를 통해, 스페인어권 화자가 넷상에서 선택하는 최대언어와 그 언어에 대한 태도 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bonito는 스페인에서, lindo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용된다는 고정관념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lindo는 특히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매우 선호될 뿐, 북아메리카에 가까울 수록 bonito의 사용빈도가 높아진다. 즉,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lindo 선호지역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선택에 가깝다고 논자는 보고 있다.

	lindo	*bonito*
Argentina	75%	25%
Uruguay	76%	24%
Perú	64%	36%
Chile	57%	43%

España	20%	80%
México	31%	69%
Venezuela	36%	64%
Colombia	44%	56%

적 특성으로 인해 '표준 스페인어'가 될 수 없다든지, 유럽 스페인어가 정통 스페인어이므로 학습모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편협한 시각을 지닌 교수자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지기도 한다.

학생들의 이러저러한 질문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고, 그릇된 정보나 고정관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바로 여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학습모델로서의 중남미 스페인어

1. 편견 혹은 무관심

솔직히 말해, 스페인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들은 '유럽스페인어'든 '중남미 스페인어'든 지역별 차이나 명칭에 대해 큰 고민 없이 '규범스페인어español estándar', '교양스페인어español culto'라고 믿는 바를 가르쳐왔다. 학생들이 음성언어나 비음성언어적으로 올바른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회언어학적능력competencia sociolingüística을 포함한 총체적인 의사소통능력competencia comunicativa 배양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그러다가 가끔씩 학생들의 질문이나 표현에 당황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habitación 대신 pieza라는 단어를 쓰거나 tiza 대신 gis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옷가게 점원과 대화하는 맥락에서 인칭대명사로 usted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또 일부는 tú나 vos를 선택하기도 하고, tener 동사의 2인칭 형태로 tienes 외에도 tenés를 쓰는 학생을 만나기도 한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왔는가. 대부

분의 경우,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치거나, 옳고 그름만을 언급할 뿐 별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규범형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그 표현 대신 이것을 쓰는 것이 좋다고 정정해주거나, 지역별로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하는 스페인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는 등의 반응으로 그 순간을 지나쳐왔을 것이다.

어떤 반응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일견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스페인어가 내적으로 보이는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교수자가 스페인어를 배웠던 지역의 변이형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중에 언어습득모델로 제시되어 스페인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통사적인 특징은 이론적으로나마 대략 이해 가능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휘의 다양성은 개인적으로 채울 수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것은 스페인 한림원 사전DRAE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 의지가 없는 문제이지 않은가 말이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에 대해 연구한 Morala Rodríguez(2004, 82)는 Portero / Arquero의 사용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실과 다르거나 뒤늦은 스페인 한림원의 사전작업에 대해 꼬집은 바 있다. 1992년에 이은 2001년 22번째 개정판에서 스페인 한림원은 portero와 동일하게 쓰일 수 있는 어휘들을 다수 수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휘들의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한림원이 기준으로 선택한 'portero' 라는 의미 하나만을 덧붙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23번째 개정판에서도 변함이 없다. 다음의 표를 보자.

	portero	arquero	guardameta	meta	guardavalla	golero	기타
스페인	95	–	7	11	–	–	3
아르헨티나	2	91	–	–	3	–	–
멕시코	43	94	8	2	–	–	2
미국	25	21	5	–	–	–	–
코스타리카	11	23	12	1	1	–	2
우루과이	3	30	3	–	–	2	–
콜롬비아	8	19	–	–	–	1	1
칠레	18	11	1	–	1	1	–
파라과이	4	5	1	–	–	3	–
에콰도르	1	4	–	–	–	1	–
페루	5	16	–	–	–	1	–
우바	3	4	–	–	–	–	–
베네수엘라	2	6	–	–	–	–	–
총계	220	324	37	14	5	9	8

<표 2>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 어휘 분포도

위 표는 '골키퍼'의 의미로 사용된 어휘의 분포와 빈도를 정리한 것으로, 표에 명시된 13개국의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동안의 인터넷 신문 30여 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각 국 신문의 인터넷 점유도와 월드컵 성적에 따른 관심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조사 결과는 한림원의 시각과 달리 arquero가 월등히 많이 통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arquero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변이형이라는 español meridional이라는 설명이 첨가되는데, 실상 내부적으로는 그 사용 정도가 달라 멕시코, 코스타리카, 미국은 portero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며, 반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portero는 매우 희귀한 표현이다.

한편, 교재나 참고서 결정 시 스페인에서 제작된 것을 선택하기 쉬운데, 이 또한 매우 편중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거의 모든 교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현실과 문화를 접촉하게 만드는 문제와 텍스트로 구성(『Rápido』, p.3)"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osotros/as를 사용하지 않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거나, 후반부에 그 점에 대해 잠깐 언급하기도 하고(『Gente』), 널리 금기시되는 coger나 agarrar 동사에 대해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는(『Planet@』) 경우가 빈번하다. 저자가 스페인사람인 경우, 언어모델이 유럽스페인어가 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어가 보이는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종주국임을 내세우며 교재 시장을 비교적 크게 점유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쩌 보면 제 3자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스페인어 학습모델에 대한 고민이나 한쪽 대륙의 언어에 대해 망각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행하지 않거나 등한시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Manuel Alvar의 표현에 따르면, "스페인의 스페인어가 있고 아메리카의 스페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서양 양편에 많은 스페인어들이 있다. [...] 이 언어의 주인인양 생각하는 스페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유럽스페인어의 특성을 경멸하는 아메리카인들도 있을 것이다. 모두들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 하나의 '더 나은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언어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야만 최고의 권위를 얻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속해서 공통의 스페인어라는 시스템들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1996, 17). 그러므로 스페인어의 동등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문화간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외국어 교육에서 절대 다수의 화자가 사용하는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해 개론적으로나마 이해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크나큰 교육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여러 저자가 한 교재를 공동으로 집필할 경우, 저자의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단원마다 다른 스페인어 변이형이 쓰여 arquero, portero, golero[3]를 별다른 설명 없이 넘나들 수 있는 현실이지만[4], 최소한 교수자나 학습자가 '정통'이나 '표준', '권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해석으로 유럽스페인어만을 맹목적으로 고집하거나 중남미 스페인어를 폄하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의 스페인어는 스페인, 혹은 카스티야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게는 안달루시아와 같은 스페인의 다른 지역, 크게는 대서양 건너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의 주민들도 스페인어의 성장과 변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 '표준스페인어'와 스페인어 교육

사실 수업 중에 스페인어의 여러 변이형들을 소개한다는 것은 여러 고민거리를 내포하고 있는 일이다.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어디에 가든 다른 변이형의 화자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테니 우리가 가르치는 변이형 하나만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재 중 다수가 이 변이형들의 문법이나 형태,

3) 브라질의 goleiro의 영향을 받아 우루과이로 대표되는 남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4)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한국에서 제작된 문법이나 읽기, 쓰기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가 동일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 변이형 선택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는 바이다.

어휘적 측면을 소개하거나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이 변이형들을 접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또한 이들이 학업이나 직업, 기타 개인적인 문제로 다양한 언어현실에 직접 부딪히게 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북미나 남미에서 살았거나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원어민 교수자들도 국적에 따라 다른 어휘 사용이나 발음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수업 중에 혹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변이형에 대한 호기심이나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당장 눈앞에 있는 문법문제를 풀거나 스페인어 회화연습에 주의를 빼앗겨 자신들의 궁금증을 본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중남미 스페인어와 유럽스페인어의 모든 변이형이 동등한 권위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에 대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5] 문제는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있는데, 단일하지 않은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해 다루려면 수많은 부연설명이 뒤따라야 하며 바로 이 점이 학습자들로서는 스페인어 학습을 더욱 어렵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와 관련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총체적이고 완벽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또한 실제로 스페인어의 변이형들을 교실에서 다루고자 하면 이에 대한 소개를 교수자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습자의 필요나 학습 수준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그 시발점에 대한 의문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이 과연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되묻게 된다. 스페인어의 단일성과 다양성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스스로도 깊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설명해줄 것인지도 숙제로 남는다.

---

5) 스페인, 아메리카, 영국인으로 구성된 E/LE 교수자들이 중남미 스페인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T. Beaven 1999).

한편, 여러 변이형에 대해 관심 없는 쪽이 학생들일 수도 있다. 스페인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이미 선입견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모국어가 단일어이고, 외국어로 영어(미국영어)를 먼저 습득했던 우리들은 변이형의 존재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더러, 가장 훌륭하고 유용하며 실질적인 스페인어, 즉 유럽스페인어 중에서도 수도인 마드리드어가 정확한 말이라고 인식하기 쉽다. 한국의 표준어가 서울말이듯 말이다. 더욱이 스페인어에 대한 인식 정립이 되기 전에 교수자가 실수로 흘리는 말 한마디도 이 선입견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안달루시아 말은 집시의 말이라거나, 쿠바 말은 답답하다거나, 아르헨티나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등의 개인적 느낌을 학생들은 귀기울여 듣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이 아니라면, 학생들로서는 어느 곳의 말이 되었든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실상 '스페인어'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말이 아니다. 소쉬르가 말하는 *langue*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언어로, 그 어떤 시간적, 지리적, 계층적, 개인적 특징을 제거한 말은 실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어느 시점,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Parole*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어 = 올바른 말'이란 생각은 Coseriu (1990, 50-53)에 의하면 적절치 않다. 그는 "español ejemplar"와 "español correcto"는 동의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표준'이라는 개념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언어체계, 즉 추상적인 시스템 자체를 가리키는 반면, '올바름'은 언어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화행의 특성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같은 언어에 속한 다른 변이형들(혹은 방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표준어가 '가장 올바른 언어'라는 명칭을 쓸 수는 없는 것이

다. 이 경우, 다양성이라는 틀 안에서 그 표준어의 지리적 경계를 명시하고 언어공동체 내에서의 위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어느 집단이든 공용어lengua común는 있다. 표준어는 공용어의 이상적인 규칙이자 잣대, 기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표준어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형태라는 믿음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특정 집단 내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행하는 기능과 역할, 권위에 있다. 스페인어라는 공용어도 구체적으로는 그 어떤 지역적 변이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추상적 형태이며, 중남미 스페인어도 단순한 '스페인어'일 뿐 언어의 단일성을 해치는 위협적이거나 일탈적인 존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학생이든 교수자든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학습에서 반드시 특정 변이형을 학습모델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총체적인 의사소통능력competencia comunicativa 배양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언어수행능력competencia lingüística 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와 문화, 화용론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절대다수의 언어인 중남미 스페인어 학습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학습모델 선택 시 최선은 여행이나 유학, 취업 등의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스페인어를 배우는 목적의식이 막연한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의 경우엔 교수자가 제시하는 말을 학습모델로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교수자는 지역적 특성을 배제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선택하고자 노력한다. 역사적 무게로 보면 유럽스페인어가 지역적 넓이나 인구의 방대함으로 보면 중남미 스페인어가 선택되겠지만, 이런 기준보다는 교수자 개인의 경험이 우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학습은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두 변이형의 공통적인 요소에서부터 출발하며, 점차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활용과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스페

인어 변이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된다.

중남미 스페인어의 변이형 선택에서는 먼저 매우 지엽적인 특성을 배제한 광범위한 현상에 대한 학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때는 그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첨가되어야 한다. 일부 교재에서 그러하듯이, 특정 지역의 언어 현상이나 어휘를 마치 아메리카 대륙 전반의 특징인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물론 이를 위하여 교수자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 교재 등을 준비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언제 제공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며, 수업 자료에 포함된 부적절한 지식을 수정하는 것도 교수자의 몫이다.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배경지식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한 언어의 화자가 갖추어야할 지식을 명시하는 것은 원어민이라 할 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언어를 습득하는 학생이라면 온갖 상황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축적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Ⅲ. 중남미 스페인어의 배경

스페인어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1개의 입헌군주국(스페인), 18개의 공화국(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1개의 미국 자치령(푸에르토리코)의 공용어이며, 적도 기네아와 미국, 필리핀,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스페인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유럽스페인어와는 차별되는 하나의 단일한 변이형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상 언어적으로 상이한 지역임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느낌이 영 그릇된 것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중남미 스페인어의 변이형들이 보이는 상호간의 차이는 스페인 방언들 간의 그것보다 작고, 그 역사적 뿌리도 깊지 않기 때문이다(R. Lapesa 1992, 534). Lapesa는 단일 공동체라는 느낌이 진정한 단일성이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식별력이나 구체적인 언어양상과의 친숙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즉, 중남미 스페인어는 근본적인 일치 속에 깊은 다양성을 숨겨놓고 있는 셈인데, 중남미 스페인어를 규정짓는 그 어떤 대표적 언어양상도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발견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간의 언어적 차이를 넘어서, 한 국가 내에서조차 구분되는 언어양상이 발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스페인어라는 큰 명칭하에 고유의 표준어 기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Lapesa는 이와 관련하여, 아직 총체적인 연구가 충분치는 않지만 아메리카 전 지역 스페인어의 근본구조는 동일하고, 단지 2차적 요소 혹은 소소한 구조만이 차이를 보일 뿐이라고 밝히며 전반적인 시각과 일반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중남미 스페인어를 직시하고 객관적인 개념 정의나 이해, 교육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역사적 배경

중남미 스페인어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개념과 고정관념은 스페인어가 안티야스Antillas 제도에 첫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5세기 동안의 여정이 남긴 결과물이다. '안티야스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는 약 25년의 시간동안 생성된 공통어 혹은 koiné의 산물이 이곳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점점 더 많은 지역이 스페인 왕실에 복속되는 것과 발맞추어 언어 또한 혼혈과 정치, 종교 행위를 발판으로 성장해간 것이다.[6]

정복과 식민지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는 지역에 따라 본국인 스페인과의 관계가 큰 차이를 보였고, 그 결과가 언어로까지 이어졌다. 예를 들어, 페루와 콜롬비아 스페인어는 아르헨티나나 칠레에 비해 스페인의 언어와 훨씬 흡사하다. 식민지 시대에 멕시코와 리마가 스페인 본국의 영향을 전 대륙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었던 반면, 칠레 시골 마을이나 아르헨티나 농장은 문화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쉽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해안지대는 안달루시아 스페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소통이 먼 내륙은 보수적으로 카스티야어에 좀 더 가깝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작 본격적인 스페인어의 전파가 최고조에 달한 것은 19세기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이 과정에서 출신지가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밀집해있었던 대도시나 주요 경제 중심지가 국가를 대표하는 여러 지역적 변이형들의 탄생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스페인어의 내적 분

6) Lodares(2001, 33-34)에 의하면, 사실 스페인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뿌리내린 이 공통어는 단일어를 정착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필요에 의해 출발했다. 즉, 언어공동체는 식민지 시대 왕이나 부왕들의 위업이나 계획이 아닌 경제공동체의 결과물인 셈으로, 이로써 국가라는 집단을 지탱하고 새로운 아메리카 식민지를 성공적으로 재편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가 본격화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 중심지가 나머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변화를 야기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즉, 대도시의 말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던 타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수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여러 상이한 방언들이 곳곳에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방언간의 경계는 반드시 국경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특징적이고 넓은 분포를 보이는 언어적 습관으로 구분되고는 한다. 이는 위에서 밝혔다시피 각국의 대도시가 미치는 강력한 문화적, 언어적 영향력 때문으로, López Morales(1998, 211)는 방언의 관점에서 비교적 단일한 상황을 보이는 지역, 예를 들어 중미, 안티야스 제도, 파라과이, 칠레 등은 언어에 미치는 수도의 영향이 덜 두드러지는 편이고, 여러 방언이 공존하는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은 수도의 말이 언어모델로 작용한다고 한다. 방언들과 수도에서 쓰이는 말이 다르면 다를수록 후자의 권위가 커지는 셈이다.

한편, 20세기에도 아메리카 대륙의 언어변화는 끊이지 않았는데, 언어변화의 근원지인 대도시가 국경을 초월하는 전 지구적인 언어양상에 대응하는 역할도 도맡게 되었고, 이것은 라디오, 영화, TV,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 일상생활이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지역색을 줄인 거의 중립화된 언어의 창조와 전파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매체들과 각국의 수도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더 일반적이라고 판단한 특성들을 쉽게 수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세기에 들어 스페인어는 내적 차이를 간직한 새로운 합일 과정으로 들어선 셈이다.

2. 지리적 차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중남미 스페인어는 지리적으로 단일한 양상을

보이는 언어가 아니다. 또한 유럽스페인어에 종속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중남미 스페인어란 유럽스페인어가 아닌 '규범estándar' 스페인어라는 큰 틀 안에 속해있으면서, 음성적,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 비교적 독자적인 규칙을 갖춘 하부 변이형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이형들은 유럽스페인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대륙 내에서도 상이한 모습을 보이므로, 지나치게 일반화된 개념 정의는 금물이다. 예를 들어, A. Rosenblat(1970)이나 Zamora와 Guitart(1988, 108)는 중남미 스페인어의 발음상의 특징을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보수적인 방언dialectos conservadores'으로 분류되는 고지대 혹은 내륙 지역, 그리고 '개혁적인 방언dialectos radicales'으로 분류되는 저지대 혹은 해안지대가 그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이 두 지리적 구분에 따라 발음상의 특징이 비교적 확연히 구분된다.

규범 스페인어의 발음	유럽 스페인어		·모음의 변별력 약화 ·일부 지역 yeísmo 부재 ·consonantes implosivas(-s, -r, -l, -n) 보존 ·진동음vibrantes의 기식음화
	중남미 스페인어	고지대 (내륙지역)	·비강세 모음 보존 ·Yeísmo ·consonantes implosivas(-s, -r, -l, -n) 약화 ·진동음vibrantes의 보존
		저지대 (해안지역)	

<표 2> 중남미 스페인어 지역별 주요 발음특징 비교

또한 Henriquez Ureña는 대도시 언어적 특성을 기준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크게 다섯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라아바나, 산토도밍고로 대표되는 카리브해 지역, 멕시코시티와 기타 대도시로 대표되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지역, 보고타, 라파스, 리마로 대표되는 안데스 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순시온으로 대표되는 라플라타 지역, 산티아고로 대표되는 칠레 지역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따른 언어 규범의 차이, 교양규범의 차이를 교육의 기준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비록 교양어에서는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말이다.[7]

한편, 형태·통사적인 측면에서 중남미 스페인어는 더욱 복잡한 인칭대명사 체계를 보인다. 친밀도나 정중함의 정도에 따라 tú, usted, vos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Quesada Pacheco 2005).

		유럽스페인어	중남미 스페인어
단수	정중한 상대	usted	usted
	격의 없는 상대	tú	tú: 안티야스 제도,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
			vos: 중미,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usted: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복수	정중한 상대	ustedes	ustedes
	격의 없는 상대	vosotros	

<표 3> 스페인어 인칭대명사 체계

위 표에서 보다시피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친밀한 상대에게 사용되는

7) 한편, 스페인어 교육에서는 마드리드, 멕시코시티, 보고타, 리마의 스페인어를 규범으로 언급하고 있다.

인칭대명사는 스페인에서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특히 단일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tú, vos, usted이 친밀함을 부각하는 2인칭 대명사로 선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예를 들어,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이와 같은 이유에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아메리카 대륙 스페인어의 대명사 체계와 그에 따른 동사형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강아지들에게 "cállense"라고 말하는 상황에 당황하거나 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다.[8]

한편, 동사의 시제도 대서양 양쪽의 스페인어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과거시제의 기능과 사용의 차이이다. 부정과거형과 현재완료형이 시제나 상aspecto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는 유럽스페인어 즉 마드리드나 방송매체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의 표준어와 달리, 대부분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오직 상의 차이만을 보일 뿐이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시제나 상의 차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Quesada Pacheco 2001; Lapesa 1992).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과거-현재완료의 시제와 상을 구분하는 지역: 스페인 중남부

Esta mañana he hablado con tu madre / Hablé con tu madre ayer

•부정과거-현재완료의 상을 구분하는 지역: 스페인 북부, 카나리아스 제도,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부, 우루과이, 칠레

Este mes estudié mucho (=ya he acabado de estudiar) / Este mes he

8) 논자 자신도 스페인의 한 극장에서 월트디즈니사의 「101마리의 달마시안」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던 도중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다. 한 밤중에 동네에서 시끄럽게 짖어대는 개들에게 주민들이 "cállense"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극장 안에 있던 스페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개에게!'라며 서로 수군거렸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멕시코에서 더빙되어 스페인어권 전역으로 배급된 영화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상황이 스페인에서 발생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던 셈이다.

estudiado mucho (=todavía continúo estudiando)

•부정과거를 현재완료 대신 사용하는 지역: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북서부

Esta mañana hablé con tu madre

가장 연구가 활발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어휘-의미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하기로 하겠다.

3. 사회·문화적 상황

유럽스페인어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많은 사회 방언dialecto social, sociolecto들을 탄생시켰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 계급, 농촌인구의 대규모 도시 이동, 원주민 집단별로 상이한 기득권 세력으로의 편입 정도, 성차별이나 세대 차이 등 사회와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과 비례하였기 때문이다. 언어 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차이가 언어적 차이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다양한 언어 상황을 부추기는 동기가 되었다(López Morales 2004, 102-103).

흔히 농촌지역 화자들은 그들의 언어적 특징에 의해 도시민들과 확연히 구분되지만, 더 권위 있거나 인정받는 언어형과의 잦은 접촉은 이들을 자극해 자신들의 언어 습관을 버리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한 젊은이들은 사회 일반과 구별되려는 욕구에서 기성세대가 사용하지 않는 사용역registro을 선택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계층일수록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계층과 다른 언어 사용역을 고수하는 경향도 있다.

이와 같은 중남미 스페인어의 사회 계급적diastrático 차이와 함께 유럽스페인어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스페인어권 세

계는 위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단일하거나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단독으로 변화하거나 고립되어 있지도 않다. 인류언어학적 상황에서 홀로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 학습은 원어민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오로지 발음이나 형태-통사적 특성, 어휘만을 습득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페인어가 살아 숨쉬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도 얻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오전, 오후에 대한 시간 개념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buenos días와 buenas tardes의 경계가 달라진다. 스페인의 경우, 보통 오후 2시경의 점심식사시간을 경계로 오후 인사로 바뀌는 반면, 적도 근처의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태양의 위치, 즉 정오 12시를 기점으로 인사가 바뀐다. 밤에 대한 개념, 이에 따른 밤 인사의 시작도 스페인은 밤 8시 경, 중앙 아메리카는 7시경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내일 오후에 영화 보러가자'라는 단순한 제의가 스페인인과 중미인과의 의사소통에서 큰 오해를 야기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욕설이나 금기어와 같이 사회적 해석이나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수용되는 어휘들이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 스페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계급적 차이에 상관없이 욕설이나 금기어의 사용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이는 중남미 스페인어 화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문화차이중 하나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Ⅳ. 중남미 스페인어의 특징: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스페인어 수업에서 중남미 스페인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있는데, 단일하지 않은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해 다루려면 수많은 부연설명이 뒤따라야 하며 바로 이 점이 학습자들로서는 스페인어 학습을 더욱 어렵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와 관련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총체적이고 일목요연한 연구결과가 나와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중남미 스페인어가 아무리 상이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이거나 비교적 광범위한 현상을 분류해내기는 어렵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정보를 가지지 않도록 그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부연되어야 한다. 많은 교재에서 그러하듯이, 특정 지역의 언어 현상이나 어휘를 마치 아메리카 대륙 전반의 특징인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중남미 스페인어의 배경, 즉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와 원주민 토착어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괄목할 만한 특징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발음

1) 모음의 특징

스페인어의 모음은 그 어느 곳이나 발음이나 음운체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중남미 스페인어의 경우, 지역별로 발음 경향을 나누어 볼 수 있다. A. Rosenblat(1970, 34)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을 대륙적이고 추운 '고지대'와 따뜻한 해안의 '저지대'로 구분하였는데, 멕시코 고원,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과 같은 고지대에서는 "모음을 먹어버리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강세모음 뒤에 -s가 올 경우, 모음이 생략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gra's, vam's). 반면, "자음을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저지대, 특히 아프리카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리브해 지역은 모음의 비음화鼻音化nasalización 경향이 강하고, -s의 상실로 인해 끝자리 모음이 개모음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단수의 calle는 좀 더 폐색된 -e로, 복수 calle는 좀 더 열린 -e로 발음하는 것이다.

또한 *siguir*(seguir), *mesmo*(mismo), *revulución*(revolución), *josticia*(justicia), *rial*(real)과 같은 모음의 혼동을 보이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며, *culumpio*(columpio)와 같은 동화현상, *asperar*(esperar)와 같은 이화현상, *acordión*(acordeón)과 같은 이중모음화도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스페인이든 아메리카대륙이든 지역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규범을 벗어난 모음의 사용은 보통 화자의 사회화나 교육의 정도가 낮을 수록 빈번해지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엔 한 언어를 규정하는 특징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용역registro의 관점에서 논해질 수 있다.

2) 자음의 특징

① Seseo

Seseo는 중남미 스페인어 전지역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무성마찰치간음[θ](z, ce, ci)을 /s/로 대체한 것을 가리킨다. 스페인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tasa/taza, casar/cazar의 발음 구분이 가능한 반면, 아메리카에서는 동일한 /s/로 발음된다.

② Yeísmo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서, 무성설측경구개음인 ll[ʎ]의 발음을 유성경구개음인 y[j]가 대체한 것을 말한다. 특히 이 발음은 미대륙에서 많은 변이형을 낳았고, 그에 따라 크게 yeísmo, lleísmo,

zeísmo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스페인의 중부와 북부의 특징인 lleísmo는 pollo/poyo, halla/haya의 발음을 구분하는 경우이고, yeísmo는 구분 없이 모두 후자로 발음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유성마찰구개음 [ž]나 무성음 [š]로 발음하는 경우가 zeísmo(seísmo)이다. 파라과이, 콜롬비아 고원지대, 페루, 칠레 북부와 남부, 아르헨티나 꼬리엔떼스Corrientes 지역 등의 남미와 멕시코의 아또또닐꼬Atotonilco에 lleísmo 지역이 존재하긴 하지만, yeísmo가 스페인어권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단위 현상인 반면 zeísmo는 주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만의 특징이며, 더욱이 점차 seísmo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③ -s의 기식음화

3.1.1.에서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저지대'에서 자음을 발음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런 점이 음절의 마지막, 특히 단어 마지막 자리의 -s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를 기식음화aspiración하거나 아예 발음하지 않는(*vamo[h]* a quejar, *lo[h] enamorao*) 경우가 빈번하다. 16세기부터 등장한 이 현상은 사회계급에 따라 차이를 보여, 고등교육을 받은 계층이나 정중한 어법에서는 덜 발견된다.

④ 기타

위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특성 외에도 다음의 현상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 지역적 분포가 불규칙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도 공동체에 따라 다르지만 말이다.

- h의 기식음화: 비교적 일반화된 현상이다.
- j 발음의 차이: 무성마찰연구개음인 j는 스페인어의 특징적 발음으로서 미대륙에서는 스페인보다 약하게 발음되거나, 아니면 영어처럼 단

순한 기식음 h로 발음되기도 한다.

- /h/의 /s/ 대체: 폐쇄음 앞이나 단어나 음절의 끝에서 매우 일반적이다(*pehkar, vamo[h]* a quejar).
- 마찰음 d의 약화 혹은 소실: 단음절을 제외한 단어의 끝에서 발음되지 않는다(*ciudá, hablao*).

2. 형태·문법적 특징

1) Voseo

원래 vos는 고전 라틴어에서 vosotros(혹은 ustedes)를 의미하였다가, 후기에는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의식儀式용으로 사용하도록 2인칭 단수 vos가 기존의 tú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귀족이나 존칭의 대상에게 사용했던 vos와 아랫사람이나 친근한 상대에게 썼던 tú 사이의 간격은 중세말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황금세기에는 동일시될 정도였는데, 17세기에 추상적인 호칭어로 가장 널리 쓰였던 Vuestra Merced이 그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vuesa merced, vuesarced, vuesasté, voarced, vucé, vosted, usted으로 바뀌면서 정착하여 말기에는 '경의'를 뜻하는 형태인 usted으로 결정되어 현재의 인칭대명사 구조로 안정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주격대명사 vos와 usted의 역사적 탄생과정이다.

Vos가 소멸된 스페인과 달리 아메리카 대륙은 2인칭 주격인칭대명사와 관련하여 tú를 사용하는(tuteo) 지역과 vos를 사용하는(voseo) 지역으로 구분된다. Rojas(1992, 152)에 의하면, voseo가 나타나는 곳은 아르헨티나 전역,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멕시코의 치아파스Chiapas, 중미(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페루 등의 산발적인 지역이다.

반면, tuteo는 안티야스 제도와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로 대표된다. 그러나 voseo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지역적 혹은 계층적 제한을 받는 용법이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voseo든 tuteo든 공통적으로 2인칭 복수형은 ustedes로서, tú-usted, vos-usted을 구분하는 존칭의 의미가 복수형에서는 변별력을 잃고 만다. 스페인의 구어에서 vos를 찾아볼 수 없듯, 아메리카에서는 vosotros가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9]

기본적으로 voseo는 다음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주어	vos	*vos vivís*
목적대명사, 재귀대명사	te	*vos te levantás*
주격인칭대명사 전치사형	vos	*lo haré por vos*
소유사	tu	*vos regresás a tu casa*

<표 5> Voseo의 기본 구조

위에서 보듯이 voseo에는 os, vuestro가 아예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vuestro의 부재는 nuestro, suyo에도 영향을 미쳐 'de nosotros', 'de él(ella, ellos, ellas, usted, ustedes)' 등에 의해 대체되는 경향도 보인다(La casa de nosotros es alta).

한편, vos 사용지역에서는 동사의 형태도 매우 상이한데, 크게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주어 vos + 동사 vos형: vos hablás, vos comés
- 주어 tú + 동사 vos형: tú hablás, tú comés

9) 2.2.장을 참고할 것.

• 주어 vos + 동사 tú형: vos hablas, vos comes

그러므로 아르헨티나의 교양어에서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hablás, comés가 사용되지만 habláis, coméis도 상황에 따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런 교호현상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교양어가 아닌 경우, 스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ir형 동사의 영향을 받아 tenís, podís와 같은 형태도 나타난다.

2) 기타

먼저, 동사에서 괄목할 만한 특징은 2.2.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정과거시제를 현재완료시제 대신 사용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esta tarde vi a Luis). 이는 현재완료시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구분 없이 사용한다는 뜻이다. 또한 미래시제(hablaré) 대신 'ir a 동사원형' 구문이나 'haber de 동사원형' 구문을 선호한다거나(voy a hablar con Luis / he de hablar con Luis), 접속법 과거와 대과거시제에서 -se형(hablase) 대신 -ra형(hablara)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사를 재귀형으로 쓰거나(tardarse, regresarse), 무인칭 구문의 haber, hacer동사를 인칭변화하는(habían tres / hacían dos semanas) 양상도 발견된다.

한편, aquí, allí 보다 acá, allá를 선호하고, recién을 어떤 시제라도 함께 사용하며(recién hemos comido), más nada, más nunca 등의 어순을 보이기도 한다(no lo voy a comer más nunca). 통성의 명사나 형용사를 여성형이나 남성형으로 만들거나(taxisto, parienta) 일반적으로 단수형인 명사를 복수화하기도 한다(los regazos). 또한 중남미 스페인어의 축소사 선호는 이미 주지의 사실로 모든 품사에 적용되는데(abuelita, ahorita), 어미는 -ito나 -cito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aquicito, detrasito, alguito, apenitas). 그

러나 위에서 보았다시피 voseo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페인어에서 일부 발견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3. 어휘의 특징

중남미 스페인어의 어휘를 규정짓는 대표적인 네 가지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원주민어의 영향

J. A. Frago(2000, 17)는 "단지 한정된 수의 전前스페인시대 언어만이 스페인어에 괄목할 만한 어휘를 제공하였고, [...] 또한 그 원주민어들의 수용은 매우 일찍이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원주민어는 주로 나우아뜰náhuatl과 께추아quechua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국경 너머에서도 의사소통수단으로 활용될 정도로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던 언어였다. 정복이후 누에바 에스빠냐Nueva España 부왕국이 경제적으로 중시되면서 나우아뜰은 자연스럽게 스페인어에 스며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hule jícara, tomate, petate, aguacate, cacahuate(cacahuete), cacao, coyote, chicle, tiza 등이 스페인어에 유입되었고, 마찬가지로 리마 부왕국에서부터 vicuña, alpaca, llama, cancha, chirimoya, coca, mate, papa, cóndor, puma 등의 께추아어가 들어왔다.

한편, 정치·경제·문화적인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스페인과의 접촉이 빨랐다는 이유에서 안티야스 제도의 토착어인 아라우아꼬arahuaco와 카리베caribe가 특권적인 위치를 점유했다. 서양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목격한 1492년에서 멕시코 정복이 이루어졌던 1519년까지의 시기가 '안티야스 시대etapa antillana'로 불린다는 사실은 당시 이

지역이 갖는 의미를 짐작하게 하는데, 생소한 땅에서 처음 보는 사물과 동물의 명칭을 이 언어들로 익힌 정복자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중에 이 어휘들을 전 대륙으로 전파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아라우아꼬어 중에서 오늘날의 아이티, 푸에르토리코, 쿠바 지역에서 쓰이던 타이노taíno어가 가장 두드러졌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을 비롯해 전 유럽이 ají, batata, enagua, canoa, hamaca, maíz 등의 타이노어와 barbacoa, butaca, cacique, caimán, caníbal, caoba, guacamayo, huracán, iguana, loro, maní, papaya, piragua, tabaco, yuca 등의 아라우아꼬어를 수용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투피-과라니tupí-guaraní가 파라나Paraná강과 파라과이 사이 지역의 복음화와 예수회 신부들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되었다. 원래 떠돌아다니며 살던 이 지역 원주민들이 선교사들을 통해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과라니어가 오늘날까지 파라과이 인구의 90%가 사용하는 공동공용어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과라니어는 전 대륙적인 관점에서 크게 중시되지는 않지만, tiburón, maraca, ñandú, cobaya, piraña 등을 스페인어에 전수했고, petunia, tapioca, jaguar 등도 프랑스어를 통해 들어왔다.

스페인어의 일부가 된 미대륙 토착어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maíz, butaca, cacao, cacique, chicle, chocolate, tiza, tomate, canoa처럼 원래의 사용지역을 넘어 전 아메리카 대륙과 스페인에서까지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는 반면, 스페인에서는 나우아뜰어 aguacate로, 미대륙에서는 께추아어 palta로 한 사물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당연히 스페인보다 미대륙에서 원주민어의 사용이 훨씬 빈번하다. 또한 도시말보다는 시골말에서, 교양어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용역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셋째, 미대륙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페루와 볼리비아

에서의 토착어 사용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편이다.

2) 스페인어의 유산

미대륙에 첫발을 디딘 스페인사람들은 진귀한 사물과 자연에 명칭을 붙일 때 토착어 말고도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oveja(llama), lagarto(caimán), piña(열대 과일) 등이 사용되었고, 공통점이 없는 양과 라마를 동일시한 결과 중의polisemia 현상이 나타나고는 했다. 그리하여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접미사 활용이나(granadilla, limoncillo), 'de Castilla'나 'de Indias' 첨가(conejo de Indias, arroz de Castilla), 파생derivación(voltear 'dar la vuelta', demoroso 'lento'), 합성(arañagato '가시과 식물', cuatronarices '뱀의 일종')이 그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한편, 스페인에선 이미 고어가 된 어휘들이 계속 사용되거나(liviano 'ligero', pollera 'falda'),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는(recordar 'despertar', pararse 'ponerse de pie') 경우도 종종있다. 또한 스페인과 미대륙에서 쓰이는 어휘의 형태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아메리카	스페인	아메리카	스페인
almuerzo	comida	manejar	conducir
apurarse	apresurarse	papa	patata
bravo, enojado	enfadado	pararse	levantarse, ponerse de pie
cocinar	cocer	tomar	beber
demorarse	tardar	celular	móvil
desempleado	parado	computadora	ordenador
jugo	zumo		

<표 6> 유럽스페인어-중남미 스페인어의 어휘 차이

3) 아프리카어와 외국어의 흔적

아프리카어[10]의 유입은 흑인노예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 영향은 지역마다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스페인 점령군에 의해 거의 소멸되기 시피 한 토착민을 대신해 흑인 노예가 들어간 카리브해와 흑인 노예의 역사가 없는 지역은 그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Banana와 같은 과일이나 samba, conga, mambo 등의 춤이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카리브해 일부에서는 guineo, burundanga, guarapo, bembé 등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한편, 남미에서는 '하녀'를 뜻하는 mucama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외국어의 경우, 프랑스어가 18-19세기에 특히 남미 남단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아르헨티나 플라타Plata강 유역은 이탈리아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또한 근세부터 현재까지는 영어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11]

---

10) '아프리카어'라는 표현은 사실상 적절치 않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남미 대륙에 노예로서 끌려온 이들은 특히 아프리카 서부 출신자가 많았다. 따라서 현재 남미, 즉 스페인어에 남아있는 아프리카어의 유산은 특정 지역의 어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 스페인과 아메리카 모두 영어의 거센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스페인어의 '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고, 또한 멕시코 북부와 미국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espanglish도 오늘날의 대표적인 언어접촉현상으로 간주되어 활발한 연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costa-Belén, E.(1975), "Spanglish: A Case of Language of Contact", *New direction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eaching and Bilingual Education*, Washington D.C.: TESOL, 151-8; Amastae, J. & Elías-Olivares, L.(1982), *Spanish in the United States: Sociolinguistic Aspect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Klee, C. A. & Ramos García, L.(1991), *Sociolinguistics of the Spanish speaking World: Iberia, Latin America, the United States*, Tempe, Arizona: Bilingual Press; Lipski, J. M.(1985), *Linguistic Aspects of Spanish-English Language Switching*, Tempe, Arizona: Arizona State Univ., Center for Latin American Studies; Stavans, I.(2003), *Spanglish: The Making of a New American Language*,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Taschner, R. V. & Billis, G. D. & Craddock, J. R.(1975), *Spanish and English of the United States Hispanos: A critical, Annotated, Linguistic Bibliography*, Arlington, VA: Center for Applied

이러한 외국어 유입과 관련하여, 미대륙과 스페인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미대륙에서 사용되는 외국어가 스페인에서는 통용되지 않거나(jeans / vaqueros)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고(Deténgase / Stop)가 있고, 각기 다른 외국어에서 동일한 의미의 어휘를 수용하거나(computadora / ordenador[12]), 같은 외국어를 받아들였어도 발음과 철자가 다르거나(piyama-payama / pijama), 외국어 구문의 의역 차용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cortina de hierro / telón de acero).

Ⅴ. 결론

스페인어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과거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언어의 권위와 종속관계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여, 식민지 독립 후 스페인어의 분화에 대한 우려, '스페인어'와 '카스티야어'의 명칭 논쟁, 마르께스 Gabriel García Márquez와 라사로 까레떼르Lázaro Carreter의 철자법 효용성에 대한 갑론을박, espanglish의 등장과 확산으로 불붙은 미국영어의 스페인어 오염 등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널리 피력해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해 다시 논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기본적인 부분만을 재확인하는 일일뿐이다. 그러나 언어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의 풍토와 스페인에서 수학한 교수자들이 다수인 한국 대학의 상황에서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미래의 스페인어 화자들에게 좀 더 온전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Linguistics.

12) 프랑스어 ordinateur에서 유래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우리는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해 그 배경과 특징을 다각도로 고찰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한 인식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 화용론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할 뿐더러 필요하기도 하다.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를 사는 우리 학생들은 해외에 나가 스페인어권 화자를 조우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남미 스페인어 화자를 만날 가능성은 더욱더 크다.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이 고급 수준에 접어든 학생들이 스페인어 방언학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론적이나마 중남미 스페인어의 괄목할 만한 특징과 그 배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학습 항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외국어 습득 시 학습모델의 선택은 학습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와 관심, 사전 지식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하지만 한국의 스페인어 전공자들처럼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상황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조건이므로, 교수자의 언어모델 선택은 더욱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논의나 합의 없이 학습모델이 교수자의 개인적 선택에 의해 제시되어지는 우리 현실에서도 지역에 따른 변이형에 대한 편견이나 호감은 분명히 존재한다. 지역적 차이를 초월한 '교양 스페인어español culto'를 학습모델로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분명히 유럽스페인어와 중남미 스페인어는 서로를 뚜렷이 구분 짓는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차이점들을 해석할 때 어느 한쪽이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을 나누는 시각이나 '정통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편견, 실제보다 과장된 설명 등이 곁들여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한다. 중남미 스페인어는 '표준(규범)' 스페인어의 다양한 변이형일 따름이지, 독립적 혹은 종속적이거나 고립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논자 자신도 본 연구를 통해 중남미 스페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중남미 스페인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실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놓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우성(2000), 『스페인어 교육과 중남미 스페인어』, 서어서문연구, 16호, pp.3-28.

_____(2001),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의 표준어의 문제』, 서어서문연구, 18호, pp.85-104.

Alatorre, A.(1989), *Los 1,001 años de la lengua española*, México D.F.: Tezontle.

Alvar, M.(1996), *Manual de dialectología hispánica: El español de América*, Barcelona: Ariel.

Beaven, T.(1999), "¡Pero si no se dice así!": un estudio de las actitudes de los profesores de E/LE hacia la enseñanza del español como "lengua mundial", *Actas del X congreso internacional de ASELE*, Tomo I, Cádiz, pp.115-122.

Buesa, T., Enguita, J. M.(1992), *Léxico del español de América: su elemento patrimonial e indígena*, Madrid: Mapfre.

Cano Aguilar, R.(1999), *El español a través de los tiempos*, Madrid: Arco Libros.

Cerrolaza, M., Cerrolaza, O., Llovet, B.(1998), *Planet@ 1, 2, 3(versión MERCOSUR) y 4*, Madrid: Edelsa.

Coseriu, E.(1990), "El español de América y la unidad del idioma", *I*

Simposio de Filología Iberoamericana, Zaragoza: Pórtico, pp.45-74.

Entwistle, W. J.(1969), *The Spanish Language, Together with Portuguese, Catalan and Basque*, London: Faber & Faber Lim.

Frago, J. A.(2000), "Formación del americanismo léxico", *Actes du colloque L'espagnol: de l'Espagne à l'Amerique latine, évolution d'une langue*, Paris: Instituto Cervantes-Unión Latina, pp.17-22.

Guitarte, G.(1992), "Del español de España al español de veinte naciones. La integración de América al concepto de lengua española", Hernández Alonso, C., *et al.*(eds.), *El español de América*, Tomo 1, Salamanca: Junta de Castilla y León, pp.65-86.

Herrero Andión, M.ª A., Gómez Sacristán, M.ª L.(1988), "Rasgos fonéticos de América en la enseñanza de E/LE: ¿cuáles, cómo y dónde deben ser tratados?", *Actas del V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ASELE*, pp.125-132.

Lapesa, R.(1981),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9.ª ed., Madrid: Gredos.

Lodares, J. R.(2001), *Gente de Cervantes. Historia humana del idioma español*, Madrid: Taurus.

López Morales, H.(1998), *La aventura del español en América*, Madrid: Espasa.

_____ (2004), *Sociolingüística*, Madrid: Gredos.

Martín Peris, R., Sans, N.(1998), *Gente 1* y *2*, Madrid: Difusión.

Miquel, L., Sans, N.(1994), *Rápido*, Madrid: SGEL.

Morala Rodríguez, J. R.(2003), "Actitudes lingüísticas y modelos de lengua en la Red", *Norme Linguistique et Société*(dir. José Carlos Herreras), n.º 12, CRESLE / Presses Universitaires de Valen-ciennes, pp.237-

261.

_____ (2004), "Variantes del español en la Red", *Actas del XIV Congreso Internacional de ASELE*, Burgos, pp.73-87.

Quesada Pacheco, M. Á.(2001), "El sistema verbal del español de América: de la temporalidad a la aspectualidad", *Español Actual*, pp.5-26.

_____ (2002), *El español de América*, Costa Rica: Editorial Tecnológica.

Rojas Mayer, E. M.(1992), "El voseo en Hispanoamérica", *Presente y pasado del español de América*, Madrid: Junta de Castilla y León, pp.128-150.

Rosenblat, A.(1970), *El castellano de España y el castellano de América: unidad y diferenciación*, 8ª ed, Madrid: Taurus.

Torrejón, A.(1991), "El castellano de América en el siglo XIX: creación de una nueva identidad lingüística", Hernández Alonso, C., *et al.*(eds.), *El español de América*, Tomo 1, Salamanca: Junta de Castilla y León, pp.361-369.

Zamora Munné, J., Guitart, J. M.(1988), *Dialectología hispanoamericana.* Salamanca: Ediciones del Colegio de España.

http://www3.unileon.es/dp/dfh/jmr/dicci/0000.htm (2009.03.10)

http://cvc.cervantes.es/oteador (2009.03.10)

http://www.lenguaje.com/herramientas/Varilex/Varilex.asp (2009.03.10)

http://www.el-castellano.com (2009.03.10)

▌ 논문투고일자: 2009년 3월 22일
▌ 심사완료일자: 2009년 6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6월 22일